

논문출판의 윤리적문제

서울의대
이철희

논문출판의 윤리적문제

서울의대 이철희

서론

논문출판에 있어서 윤리문제는 논문출판과정에 관계되는 주체들의 즉 1)저자 2)편집인 3)심사위원 4)독자 5)출판주체(학회 또는 출판사) 모두 관여 되어있다. 이들은 각기 지켜야 할 의무와 누릴 권리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의무가 있으면 다른 쪽은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저자의 자격(authorship), 중복출판, 학문적 부정직성, 논문심사 그리고 편집의 자유등 5가지 측면에서 논문출판의 윤리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저자의 자격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려 본 사람에게 한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서로 다른 그 대답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그 자신이 저자로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과장이나 연구소장은 자신들이 저자에 포함될 특권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임상의사와 기초연구자들은 혈액샘플이나 생검조직을 주고 받거나 연구비충당에 기여를 했으면 충분히 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구자들 중에는 그들의 연구활동을 공동으로 모아서 모든논문을 공동의 이름으로 출판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문 수를 증가시키는 일종의 ‘논문생산집단’(production collectives)을 만드는 예도 볼수 있다.

얼마나 많은 논문의 저자인가 하는 것은 연구비 신청자격이나 구직 또는 학문적경력 평가에 있어서 아직도 세계적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논문의 저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문출판윤리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Vancouver group)은 1993년에 저자의 자격(definition of authorship)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uthorship credit should be based only on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a) conception and design, 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 and to

(b)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to

(c)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Conditions (a), (b) and (c) must all be met.

이 정의에 의하면 단순히 연구비조성이나 data 모으는데 기여를 한 정도로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미흡하며 연구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만으로는 역시 저자의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이 주장하는 주된 결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다중출판(Multiple publication)

1) 이중출판(duplicate publication)

이중출판은 동일한 논문을 편집인이나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다른 잡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중출판의 또 다른 형태는 2개이상의 다른 논문에 동일한 대조군(identical control data)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중출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잡지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이 이중출판이 아니라는 것을 논문투고시에 명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SALAMI & IMALAS technique

SALAMI 는 이태리식 소세지인데 보통 얇게 썰어서 각종요리에 쓰인다. 하나의 연구결과 얻어진 data를 여러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SALAMI technique 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결과를 추가하거나 임상례를 추가해서 별다른 노력을 안들이고 논문목록을 부풀리는 것을 IMALAS technique 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명백하게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출판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2만5천종 이상의 의학잡지가 발간되고 있는 의료정보라는 바다에서 원활한 정보유통에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짐을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이중출판이나 SALAMI 또는 IMALAS technique은 편집인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논문이 게재예정인 상태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 나오기 이전에 미리 논문의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리는 일은 공공보건에 있어 위급한 사항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잡지사의 정책에 위반된다.

3) 2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ICMJE에서는 다음기준에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기출판된 논문을 동일한 또는 다른 언어로 2차적으로 출판하는 것, 특히 다른나라에서 출판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The editors of both journals concerned are fully informed and approve; the editor concerned with secondary publication must have a photocopy, reprint,

or manuscript of the primary version.

2. The priority of the primary publication is respected by a publication interval of at least one week (unless specifically negotiated otherwise by both editors).
3. The paper for secondary publication is intended for a different group of readers; an abbreviated version could be sufficient.
4. The secondary version reflects faithfully the data and interpretations of the primary version.
5. A footnote on the title page of the secondary version informs readers, peers, and documenting agencies that the paper has been published in whole or in part and states the primary reference. A suitable footnote might read as follows: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the (title of journal, with full reference)'.

이런 규정은 은밀히 행하여 지고 있는 다중출판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특수한 언어문제를 갖고 있는 작은 나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북구라파에서는 대부분의 논문이 영어로 출판되기 때문에 국내 독자들의 접근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3. 학문적 부정직성(Scientific dishonesty)

연구결과 얻어진 data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학문적 부정직성을 색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편집인이나 심사위원의 주전공이 저자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연구진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오기 전에는 밝혀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학문적 부정직성이 의심되면 편집인은 그 문제를 다루는 공식기관(예를 들어 committee for control of scientific dishonesty)에 회부해야 하고 나아가 부정직성이 증명되면 논문출판을 철회하고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나 의료정보망에 통보하여 해당논문을 삭제시키도록 해야한다. Research fraud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샌디에고 대학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보고한 글을 이글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4. 논문심사의 윤리

논문심사위원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심사중인 논문의 운명 뿐아니라 나아가서

저자의 경력에 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논문출판의 윤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누구보다 먼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누구보다 먼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비슷한 연구를 동시에 발표하거나 심지어 심사를 더 지연시켜서 자신의 연구가 더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국제적으로 모든 학술단체가 이에 대하여 엄격한 감시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편집의 자유 (Editorial freedom)

잡지를 출판하는 주체 (학회·출판사)는 출판에 소요되는 재정문제 때문에 윤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Supplement 에 실리는 논문도 똑같이 심사과정을 거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supplement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할애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는 supplement에 실린 내용이 통상적인 quality control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임시 편집인이나 해당 단체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편집의 자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측면은 약제나 의료기에 관한 논문출간에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이해 관계이다. 예를 들어 저자나 심사위원 또는 출판사가 논문에서 다루는 해당약품이나 의료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논문의 내용을 미리 알게 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게 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잡지에 실는 광고는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집인이 이에 대처하는 자세는 극단적으로는 광고의 내용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반대로 광고의 존재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편집인이 광고의 내용이나 표현양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떠 맡지는 않지만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

의학논문 출판에 있어서 신뢰도에 금이 가고 믿음이 상실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전체 의학분야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

논문출판과정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논문출판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References

1. Nylenna M. Riis P. The ethics of medical publishing and the four principles. In Gillon R, ed, Principles of Health Care Ethics. New York:John Wiley, 1994;783–94
2.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JAMA 1993;269:2282–6
3.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Statement of 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JAMA 1993;270–2495
4. Andresen D, Axelsen N, Riis P, Attrup L. Scientific dishonesty and good scientific practice. Copenhagen: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2
5. Interan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Editorial Freedom. Br Med 1988;297:1182
6. Riis P. Publication ethics:one of many areas of scientific fraud. Acta Obstet Gynecol Scand 1994;73:526–8
7. Smith G, Miller R, Saidman L, Morgan M. Ethics in publishing. Br J. Anaesthesia 1991;66:421–422
8. Marshall E. San Diego's tough stand on research fraud. Science. 1986;234:534–535